



뜻이 많으면 마음 많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우) 58753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33-1
Tel 061)243-3169 Fax 061)244-7345
E-mail mokpo@kfem.or.kr
홈페이지 <http://mp.ekfem.or.kr>

 '목포환경운동연합' 검색하세요 🔍

 '목포환경운동연합' '좋아요' 눌러주세요

 @mokpokfem 팔로우 해주세요

발행일 2023.02.13. 제133호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
해양생물 굿즈 제작·판매 수익금 목포환경운동연합에 전액 기부, 12월28일(수)

/ 목 / 차 /

- 02 활동가 기고
- 04 보도자료
- 05 특별 기고

- 06 시민 기고
- 07 환경단상
- 08 청소년 동시

- 09 회계보고
- 10 활동보고
- 13 청소년기자단 활동
/ 환경영화

- 14 동호회 소개
- 15 신입회원 안내 /
회원 한마디
- 16 총회 안내 / 광고

시내버스 운행중단 사태를 보며

글 | 임경숙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목포 시내버스가 두 번째 운영을 멈춘 지 두 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운수 노동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파업이었고 두 번째는 가스비 미납으로 인한 중단이다.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목포시와 버스회사는 무엇을 했는지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하다.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

버스는 대중교통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이름 그대로 대중의 이동수단이다. 누구도 불편을 겪어서도 안되고 피해를 입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지금 목포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서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58년 동안 유일무이하게 경쟁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며 많은 이익을 취했으면서 이제는 손해가 나니 힘들다,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의 부채 덩어리 재산과 장비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격이다. 이제까지 부실경영에서 파생된 파업과 운행중단 사태를 방관하고 뼈를 깎는 자구책 없이 손을 놓겠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할 수 있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임원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버스회사는 조건 없이 사업권 반납해야

수십 년 동안 시민들에게 받은 요금으로 생긴 경영이익과 손실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혈세로 지원받은 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버스회사를 운영하며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했다면 이는 경영진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운행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오히려 목포시에 미납금 정리를 요구하고, 자구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시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주었다. 특단의 개선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제 경영진의 어떤 주장도 변명과 핑계에 불과할 뿐, 콩으로 메주를 쏘다 해도 시민들이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시민들은 더 이상의 지원은 밑바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므로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번에 끝장을 봐야 한다는 각오이다. 그동안 경영에서도 무능력이 입증되었고 시민에게 신뢰마저 잃은 현 경영진은 조건 없이 시내버스 사업권을 반납하는 것이 맞다.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나

목포 시내버스 사태는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지역 정치인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사태수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지금 목포시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불편 사항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긴급현안인데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목포시내 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다. 대부분 무슨 예산 확보나 설 명절 인사 내용들이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당장에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정치인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더 궁금하다. 시내버스가 불편해서 시장가기도 어려운 마당에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 1월 19일 목포역 앞 1인 피켓시위 '시내버스 FT팀 구성하라'

목포시는 문제해결에 속도를 높여야

시민들이 아직은 ‘점잖게’ 참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방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다.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해결 속도를 더 빠르게 내야 한다. 이 엄동설한에 시민들의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생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시민들이 그나마 목포시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목포 시내버스는 독점이다 보니 서비스 개선, 차량 점검, 친절 등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그동안 소홀히 해왔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연구용역도 자가용만 이용하는 전문가들만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번엔 시내버스 직접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시민의 버스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

지금의 목포시내버스 운행 중단사태는 버스업체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간 휴업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전조를 보였다. 당시 40여 개 시민단체들이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목포시내버스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여 버스회사의 일방적 횡포에 맞서 공영제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목포시의 무성의로 불참을 선언해야 했다. 그때의 ‘파행’이 결국 지금의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이번이 목포 시내버스가 시민, 학생, 운수 노동자 모두를 위한 시민의 버스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버스대책 TF팀 구성과 공론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

운행중단 이후 ‘1시간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아 열 받아 걸어서 학교 왔어요. 오늘도 지각이죠’라고 말하는 학생, ‘매일 새벽 건물 청소 일하는데 버스가 안다녀 택시비가 부담되어서 그만 뒀어요’하는 안타까운 청소노동자,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러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길 소망한다.

*편집자 주_ 이 글은 목포시민신문, NGO칼럼 1월 18일(수) 일자에 실린 글을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운행중단 상황에 맞춰 보강했습니다.

[시내버스 경과 정리]

- 12/12 가스 연료비 23억원 체납으로 가스 공급 중단돼 버스 운행 중단
- 12/28 **[기자회견]** 버스회사 이한철대표의 난폭운전! 면허취소로 중단시키고 실효적인 공공성강화TF를 구성하라
- 01/09 목포경찰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의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혐의로 이한철 고발
- 01/10 이한철 측 법인 재산 목포시에 기부 체납 제안
- 01/11 **[기자회견]** 조건 없이 사업권(노선권, 면허권) 반납하라
- 01/19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역 1인 시위 / 목포시의회와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 간담회
- 01/31 시내버스 정류장 목포시민 행동의 날 포스터 전단지 부착
- 02/01 이한철 버스 면허권 반납 촉구 목포시민 행동의 날
- 02/08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론의 장 (시내버스 강의, 시민토론)



▶ 2월 1일 목포시민 행동의 날 - 버스 면허권 반납 촉구

‘바다를 살리는 작은 행동, 큰 변화’

목포정명여고 고교생들 바다 지키기 위한 노력,
굿즈 판매 수익금 전액 (사)목포환경운동연합에 기부

- 정명여고 지리동아리, 미술동아리 학생들 굿즈 제작
- 깨끗한 바다환경 지키기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길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교장 고철수) 학생들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굿즈’ 판매 수익금을 목포환경운동연합에 전액 기부했다.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지리동아리(E.G.G)와 미술동아리(아티올리지)학생들이 2022년 연간 진행했던 활동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굿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지역환경운동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지난 28일 (사)목포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하여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바다를 살리는 작은 행동, 큰 변화’라는 모토로 1년 동안 해변쓰레기줍기 캠페인을 진행했고, 지리와 미술교과 융합프로그램을 수업에 접목하였다. 지리동아리(담당교사 서정훈)에서는 목포에 지리적으로 쓰레기가 모이는 이유를 지리교과로 학습하고, 지역 내 해양오염 실태 직시와 심각성을 깨달았다. 미술동아리(담당교사 유지수)에서는 바다에 특히 많이 모이는 마모된 바다유리를 이용해 지역에서 업사이클링하는 업체와 함께 바다유리 썬캐처, 유리트리틀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디자인 하는 법도 배우고, 필요한 디자인을 직접 구상해 해양생물 보호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스티커, 펜, 아크릴키링, 배지, 파우치 굿즈 등을 제작하여 2차례 플라마켓을 기획,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친환경 포장디자인과 마케팅, 가격측정 등을 기획하며, 플라마켓 계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목포정명여고 1층 현관로비와 카페 드롬(평화광장)에서 ‘바다를 살리는 정명 플라마켓’을 각각 진행하며,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학생들의 참여에 큰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목포정명여고 학생은 “쓰레기를 직접 주우며, 해양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친구들과 함께 굿즈를 제작했다. 판매 수익금을 우리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부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환경운동연합 최송춘 공동의장은 “지역환경에 관심 갖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학생들이 멋지고, 빛나며 대견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목포정명여고 학생들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한 해양 정화활동을 통해 환경보호 책무를 상기하고, 목포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음이 담겨있다.



▶ 정명플라마켓 굿즈 물품 판매, 활동 사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3년 6개월

글 | 김선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무처장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가슴기살 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라는 중대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부터 3년 6개월간 활동했습니다. 사참위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로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염원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습니다.

사참위는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명명하는 이유와 이를 토대로 세월호참사에서 밝혀져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사 결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의 한계 속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밝힐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주어진 한계 내에서 '사회적 참사'의 조사기구로서의 종합적인 접근과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구조방기의 경우, 세월호참사 당일 해경의 초동조치를 밝히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참사 당일과 그 이후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컨트롤타워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박근혜를 비롯한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청문회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침몰원인의 경우, '세월호 침몰원인이 외력인지 여부를 명확한 증거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세월호의 급격한 우선회와 횡경사를 유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결론, 세월호 선체 변형과 손상의 원인이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 충격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방해와 피해자 권리 침해의 경우,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령기록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1기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구체적인 과정을 밝힌 것에는 의의가 있으나, 참사 직후 이루어진 수사방해와 수사외압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진행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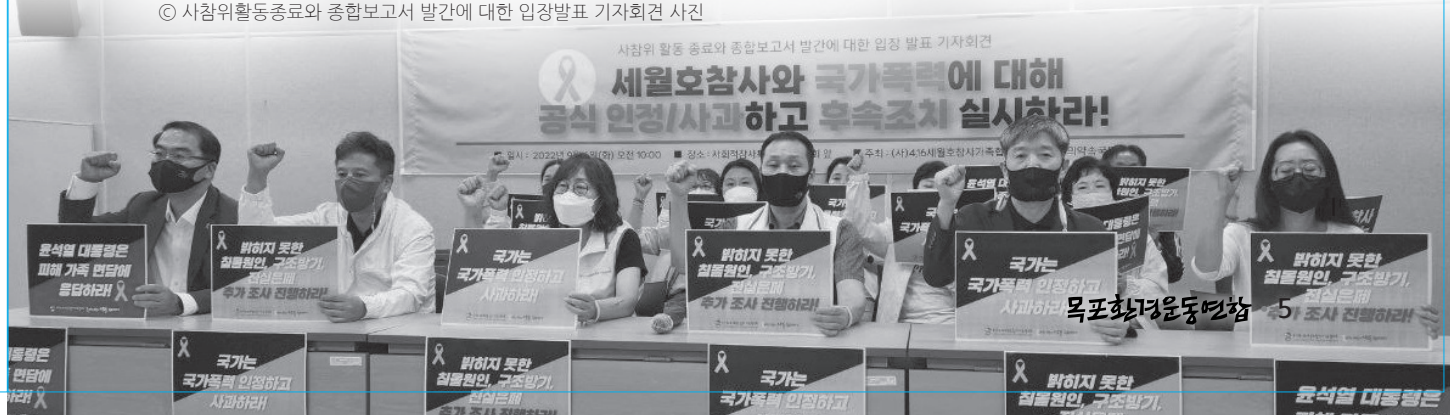
않았습니다. 사참위는 설립 당시부터 동행명령, 특검 요청, 청문회 실시 등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농성과 국민입법청원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까지 부여됐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참위가 활동 중이던 2019년 11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됐고, 2021년 1월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사참위는 진상규명 과제 중심으로 특수단에 수사 의뢰를 했고,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기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던 당시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사안은 모두 불기소처분이 있었습니다. 검찰 특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시점 이후 사참위가 조사활동을 마칠 때까지 사참위는 1년 4개월간의 활동기간이 남아있었지만, 불기소처분 관련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참위를 구성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재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보고서까지 완결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사참위의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기는 해도 사참위가 내린 결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가 기관에서 조사한 공식적 결론입니다. '책임 인정/사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참위의 권고는 즉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기본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앞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사참위의 활동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사회가 생명안전에 존중하는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참위의 결과가 이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참위활동종료와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



겨울과 함께하는 촛불의 시간

글 | 김지은

2023년의 새로운 시작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일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기후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재난상황 소식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소식에 마음이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소식들 사이에서 안정을 찾기란 쉽지 않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초에 불을 밝힌다. 초의 불빛을 보면 모든 것이 무상하기만 하다. 이미 흘러간 과거를 붙들고 방향했던 내 자신을 반성해보기도 하고, 세상이 어려운 때일수록 온기를 가지고 주위를 살피자 다짐하면서 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초 만드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부터 일상에서 ‘초’ 태우는 것을 사랑했다.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을 켜, 초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어둠이 싹-하고 걷히는 느낌이다. ‘초’ 작업을 하면서 단순한 반복이 주는 위안이 있다. 어지러운 마음이 정돈되니 자꾸만 초의 매력에 빠져든다. 게다가 ‘밀랍’이라는 재료가 주는 독특함에 끌렸다. 밀랍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꿀벌 중 일벌이 꿀을 먹고 배 부분에서 투명한 쌀알 크기의 밀랍을 분비한다. 이 밀랍을 가지고 꿀벌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짓는다. 꿀벌 개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재료’를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낼 줄 아는 존재들이다. 자연에서 오는 재료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구에 덜 해롭게 살자’는 내 삶의 방향과 맞닿아 있었다.

초를 만들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밀랍 담금초’ 워크숍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다. 밀랍이 대중적인 재료는 아니지만,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다. 초 하나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인내심이 필요하다. 크기와 모양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만들어도 다 초로 완성이 된다. 만드는 분들 저마다 성취감을 만끽하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다. 각자의 시간에 집중해서 초를 만들다 보면 자신의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 어떤 공간을 좋아하고, 어떤 것이 재밌는지 일상의 소소한 대화들이 오간다. 그 안에서 내가 모르던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런 시간 속에서 빛어낸 초들은 다시 우리의 일상을 반짝반짝 빛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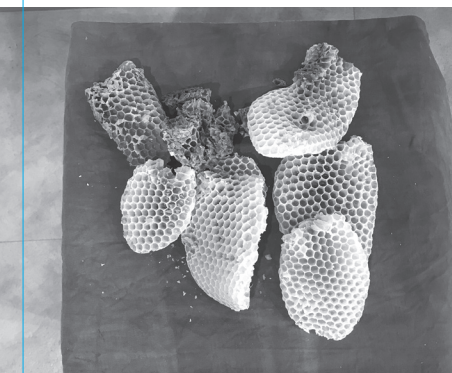
작은 불이 주는 큰 힘을 느끼며 삶의 방향을 다져 본다. 초에 켜 불을 두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간을 보낸다. 어떤 이야기와 말이 함께 하는지는 각자의 초들만 알고 있겠지... 말은 없지만 묵묵히 빛을 내주는 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살피준다. 변화무쌍하고 또 일상의 어려움이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나날이지만, 초를 켤 수 있는 하루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초는 인류와 함께 해온 시간이 길다. 생활공간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부터 염원을 담은 기도를 할 때 기쁜 날 축하할 때 빛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 갑작스러운 한파에 몸도 마음도 얼어붙는 시간이다. 바쁜 일상이지만 초를 켜는 시간과 함께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가져보면 어떨까?

*자연의 재료로 밀랍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자크밀랍상점 @wkdwkr.beeswax



© 장자크 밀랍초



© 꿀벌의 집 밀랍

한장의 사진, 하나의 단상

글 | 임성진 집행위원

추운날씨에 자꾸 움츠려드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글을 통하여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처음 글을 부탁받았을 때 부족한 글솜씨가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걸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가볍게 써달라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젊고 건강하던 시절에는 걷는 것을 무척이나 귀찮아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고는 했었지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도 들게 되고, 운동을 게을리 하니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게 되어 걷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일을 잠시 쉬면서 제주도 여행계획을 세웠을 때였습니다. ‘배낭 하나 매고 제주 올레길을 완주해보자’ 하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몸의 고단함도 차츰 익숙해지고, 주변의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차로 다녔으면 보지 못했을 아름다운 풍경과 느리게 걷는 여유로움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완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예전의 습관들을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 폐선된 철로를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며 걸어갈 때는 세월의 아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실어 달리던 기차가 이제는 카페로 변하여 사람들을 마주하는 광경에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도 합니다. 때론 걷는 게 귀찮아질 때도 있지만 습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때론 햇살 좋은날 천천히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 동목포 웰빙공원, 남만열차 1953 사진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따뜻한 봄이 오겠지요.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편집자 주_ 시와 그림은 목포공공도서관 '가족과 함께 동시쓰기' 수업을 하면서 『바다에 대한 예의』라는 환경책을 읽고 청소년들이 쓴 '동시'입니다.

바 다

송승현

바다가 쓰레기를 먹는데
한계가 되서
지구가 아파해
바다야 아~ 해봐
내가 쓰레기를 모두 빼 줄게
그게 지구 도와주는 일이니까

바다

송승현 (목포서부초 4학년)

바다가 쓰레기를 먹는데

한계가 되서

지구가 아파해

바다야 아~~~ 해봐

내가 쓰레기를 모두 빼 줄게

그게 지구 도와주는 일이니까



변해가는 지구 이야기

김민석 (광주교대부설초 5학년)

평화로웠던 지구 이야기는 변하고 있어.

숲은 지워지고 공장이 그려져,
북극은 지워져가고 서식지를 옮기는
슬픈 동물들도 그려져.

즐거워하던 물고기들은 바다에 동동 띄어진
알록달록한 플라스틱들로 배를 채우고 있어.

지구는 힘들어하고 있어.

동물과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살 순 없을까?
어렵지 않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돼.
자동차를 조금만 덜 타면 돼.
친환경 제품을 사면 돼.

변해가는 지구이야기 우리가 되돌릴 수 있어.

변해가는 지구 이야기

김민석

평화로웠던 지구 이야기는 변하고 있어.
숲은 지워지고 공장이 그려져.
북극은 지워져가고 서식지를 옮기는 슬픈 동물들도 그려져.
즐거워하던 물고기들은 바다에 동동 띄어진 알록달록한 플라스틱들로 배를 채우고 있어.
지구는 힘들어하고 있어.
동물과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살 순 없을까?
어렵지 않아. 변해가는 지구이야기 우리가 되돌릴 수 있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돼.
자동차를 조금만 덜 타면 돼.
친환경 제품을 사면 돼.

변해가는 지구이야기
우리가 되돌릴 수 있어!

지구 행복

2022년 12월

수 입		
항 목	구 입	
회 비	개인회비	8,006,000
	단체회비	645,000
	소 계	8,651,000
후원금	1,100,000	
기타수익	3,636,000	
이자수익	3,086	

*후원금

- 후원회원 15만원
- 정명여고 굿즈 판매 후원금 70만원
- 소식지 제작 후원 25만원

*기타수익

- 전남환경대상 상금 273만6천원
- 소식지 광고비 90만원

*이자수익

- 이자수입, 카드 포인트 3,086원

12월

당월수입금	13,390,086
전월이월금	7,584,825
합 계	20,974,911

2023년 1월

수 입		
항 목	구 입	
회 비	개인회비	8,303,000
	단체회비	305,000
	소 계	8,608,000
후원금	150,000	
기타수익	0	
이자수익	0	

*후원금

- 후원회원 15만원

1월

당월수입금	8,758,000
전월이월금	8,904,599
합 계	17,662,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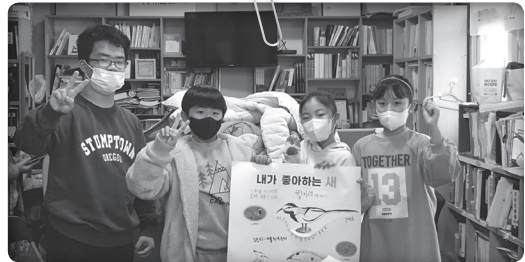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112,800
	조사연구	0
	홍보비	0
	행사비	0
	연대사업	1,132,440
소 계	1,245,240	
회 의 비	총회비	0
	위원회비	99,000
소 계	99,000	
인 건 비	급여	6,085,550
	복리후생비	1,479,120
	상여금	0
	퇴직적립금	552,532
소 계	8,117,202	
업무추진비	출장비	479,000
	활동비	80,000
소 계	559,0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선비	30,000
	도서인쇄비	520,000
	통신광열비	687,980
	소모품비	0
소 계	1,237,980	
기타	환경기금	100,000
	세금과공과금	0
	보험료	100,000
	원천징수분	71,500
	지급수수료	540,390
소 계	811,890	
당월지출금	12,070,312	
통장 잔액	8,904,599	
합 계	20,974,911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484,000
	조사연구	0
	홍보비	3,000,000
	행사비	0
	연대사업	573,440
소 계	4,057,440	
회 의 비	총회비	0
	위원회비	251,500
소 계	251,500	
인 건 비	급여	6,053,430
	복리후생비	1,446,120
	상여금	2,320,640
	퇴직적립금	552,532
소 계	10,372,722	
업무추진비	출장비	76,500
	활동비	106,000
소 계	182,5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선비	0
	도서인쇄비	20,000
	통신광열비	236,350
	소모품비	0
소 계	256,350	
기타	환경기금	100,000
	세금과공과금	19,570
	보험료	100,000
	원천징수분	99,000
	지급수수료	653,835
소 계	972,405	
당월지출금	16,092,917	
통장 잔액	1,569,682	
합 계	17,662,599	

- 01일(목)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진도 하조도) / 생애소리 관람 홍보 공문 메일 발송(목포교육지원청)
- 02일(금) ESD워크숍(영광 핵발전소, 당진화력발전소 등) 1박 2일
- 04일(일) 해안쓰레기 모니터링(해남 목동리)
- 05일(월) 소식지 원고 수정 / kbs라디오 연안구역 생애소리 관련 인터뷰
- 06일(화) 목포동초등학교 아름다운 새활용 교육 / 소식지 원고 편집 / 세월호 대표자회의
- 07일(수) 자원회수시설 시민공청회 패널 추천 발송 /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
- 08일(목) 재생에너지 토론회(도의회) / 물 절약 캠페인(목포역) / 시내버스 기자회견(목포시청)
- 09일(금) 아름다운 가게-[아름다운 하루] 기부물품 판매 참여
- 10일(토) 청소년 기자단 모임 / 임시대표자 회의(한국문화연구원 1박 2일)
- 11일(일) 총회준비위원회 5차 회의
- 13일(화) 문화도시 페스타(신안비치 호텔 비발디홀) / [기자회견] 블라스팅 불법 물량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 14일(수) 녹색환경대상 시상식 / 영흥중학교 환경교육
- 15일(목) 목포시민사회소통과 연대 워크숍(서산-온금지역 탐방)
- 18일(일) 연안구역 생애소리 전시 종료, 작품 철수
- 19일(월)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MRM 온라인 교육 / 40여명 집단해고 방조 목포고용노동지청 규탄 기자회견
- 20일(화) 해양환경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오송)
- 21일(수) [기자회견]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 노동자 40명 집단해고 규탄 시민사회노동단체 / 총회준비위원회 6차 회의
- 22일(목) 함께사는 길(연안구역 생애소리 원고 수정) /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정산서 작업
- 23일(금) 2022기부금영수증 안내 이미지 제작
- 26일(월) 2022기부금영수증 안내 회원 문자발송 / 신규 가입회원 선물 발송
- 27일(화) 시내버스 관련 현수막 신청 / 블라스팅 노동자 결의대회 참여 / 전남·광주 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뉴스 / 전라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정산서 수정본 메일 발송
- 28일(수) [기자회견] 버스회사 이한철대표의 난폭운전! 면허취소로 중단시키고 실효적인 공공성강화 TF를 구성하라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공청회 / 경명여고 목포환경운동연합 후원금 전달식
- 29일(목) 목포하당초 학교석면해체 사전설명회/ 제249차 집행위원회 / 새해인사 회원문자 발송
- 30일(금) 경명여고 기부 관련 시민신문 기고
- 31일(토) 기부금 수령 단체 관련 자료 홈택스 제출



▶ 12월 2일 ESD 워크숍(영광핵발전소 방문)



▶ 12월 10일 청소년환경기자단 수료식



▶ 12월 15일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워크숍(서산온금동)



▶ 12월 28일 [기자회견] 시내버스 공공성강화 TF구성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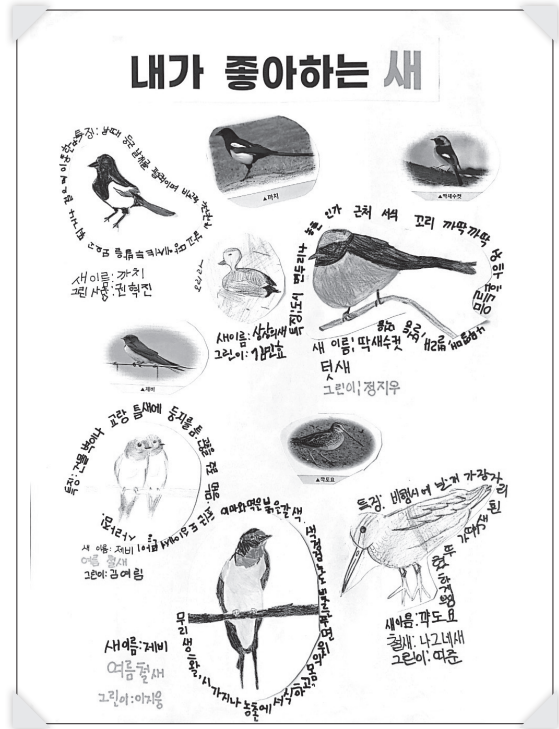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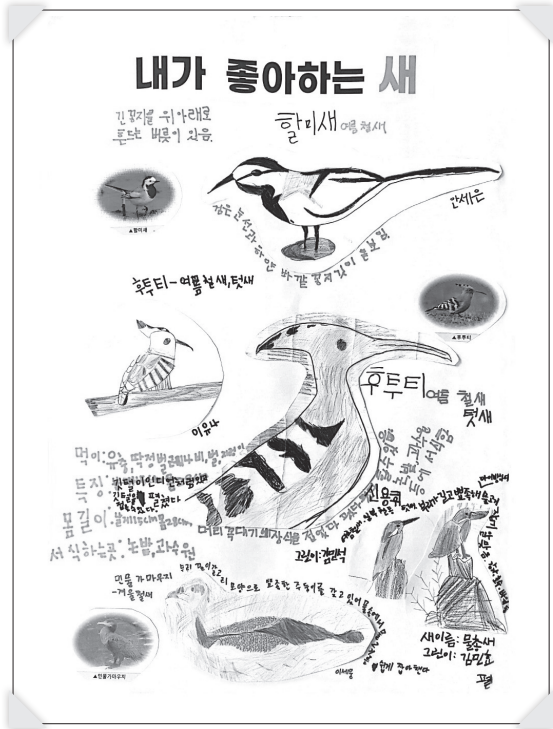
- 01일(일) 세월호 새해맞이 합동차례 참석
- 02일(월) 제28회 녹색환경대상 수상 관련 보도기사 목포시 전달 / 장례식장 탈플라스틱 사례 조사(경남 김해시) / 정명여고 기부 관련 보도자료 배포
- 03일(화) 사무국 업무회의 / 유달산 절대녹지 카페 운영 관련 사무국 방문 면담(호남매일신문 기자) / 함께사는 길 정기구독 확인 안내(문자/밴드) / 다이어뜨 모임
- 04일(수) 문화예술특화사업 회의
- 05일(목) 다이어뜨 모임 / 환경수첩 제작 관련 문의, 내지 내용 정리 / 영산강하굿둑 불법 어로 투망행위 민원 접수
- 06일(금) 전남환경운동연합 국처장단, 대표 온라인 연석회의
- 07일(토) 전국임시대표자회의(서울역) / 에코트레킹 모임
- 09일(월) 총회준비위원회 7차 회의 / 2022년 활동일지 사업보고서 초안 작성
- 10일(화) 6.15집행위원회 / 해상풍력 프로젝트 KFEM팀 온라인 회의 / 함께사는길, 신입회원 선물 발송
- 11일(수) 블라스팅 노동자 연대지지방문 / [기자회견] 태원·유진은 조건 없이 사업권(노선권, 면허권) 반납하라 / 소식지 편집회의
- 13일(금)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목포지역 간담회(하당청소년 문화센터)
- 15일(일) 총회준비위원회 8차 회의 / 지구를 구하는 발걸음 모임
- 16일(월) [기자회견]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해결 불법 다단계 물량제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전남지역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세월호 조례제정 관련 목포시의장 면담
- 17일(화) 홍일중 석면 해체 모니터링 / 소식지 설문조사 초안 작성 / 2022년 활동일지 사업보고서 초안 수정
- 18일(수) 다이어뜨 모임 / 소식지 설문조사 수정 / 동호회 만남의 날 준비 / 제250차 집행위 회의자료 초안 작성
- 19일(목) 시내버스 관련 목포역 1인 시위, 목포시의회와 대책위 간담회 / 물량제 폐지, 4대보험 쟁취 블라스팅 노동자 투쟁 승리 보고대회 / 환경건설팀 관련 도초교 교장 면담
- 20일(금) 시내버스 관련 목포역 1인 시위
- 25일(수) 사무국회의 / 가족센터 계획서 제출
- 26일(목) 다이어뜨 모임 / MRM보증보험 연장(3년)
- 27일(금) 2023년 사업계획안 작성 / <생태와 에너지> 제4차 공론장 온라인 회의 / 동호회 간담회 안내
- 30일(월) 에코리딩 모임 /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회 / 1차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 31일(화) 자원회수시설 2차 공청회 / 시내버스 관련 목포시민 행동의 날 홍보 포스터 정류장 부착 / 총회준비위원회 9차



획비 납부

2022년 12월 ~ 2023년 1월

(유)세라돌/(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담을꿈협동조합/대신아이시티(주)/더오래뜰/
만인계마을기업/목포대성신협/영암일보(주)/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게스트하우스 달꾸메/감의갑
(장미선)/강덕수/강동호/강명근/강복수/강석원/강선애/강성희/강영규/강영두/강제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
강혜정/강화심/고경석/고광엽/고광진/고광진/고광진/고광현/고성철/고윤혁/고정화/공남은/곽신영/곽재구/
구봉선/권수한/기재명/김가영/김경미/김경숙/김경애/김경완/김경희/김공경/김관오/김광미/김광수/김광호/
김근대/김근순/김기범/김기봉/김기철/김나영/김대중/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말금/김맥아/김명숙/
김명중/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병옥/김보현/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
김성진/김성희/김수린/김수미/김숙자/김순미(멜로아)/김순영/김승현/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양준/김영남/
김영민/김영범/김영식/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영희/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진/
김웅기/김원이/김원중/김유경/김유현/김윤임/김윤호/김은경/김은미/김은희/김일용/김장원/김재영/김재혁/
김정민/김정훈/김정희/김종국/김종수/김지수/김지숙/김지희/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택/
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학주/김행연/김현곤/김현숙/김현우/김현정/김형기/김형애/김혜정/김홍안/
김화영/김환석/김효정/나광봉/나양명/나연운/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노천우/다겸/류금순/류미현/
류수영/류용철/류재청/마홍식/모원중/목포연희네포차/무관/문보현/문성중/문승현/문원규/문정임/문지영/
문호/문호산/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경재/박권철/박금단/박기남/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대현/
박동구/박동환/박문옥/박미덕/박미숙/박미정/박민규/박배선/박병구/박병삼/박상현/박선옥/박성수/박성영/
박성욱/박성원/박성준/박성현/박세륜/박수정/박순미/박안섭/박영윤/박용/박용일/박용호/박원배/박원석/
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범/박재신/박재홍/박정록/박종수/박종위/박진/박창수/
박창우/박창현/박천웅/박최균/박필수/박현/박현/박현경/박혜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배동희/배영식/
백동진/백성숙/백재봉/변옥숙/변재영/봉문수/서경수/서병권/서연순/서영선/서영숙/서영옥/서재연/서정/
서정만/서한배/선채원/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혜인/손민원/손봉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다희/송두호/
송미정/송영미/송영준/송정미/신경우/신경희/신동영/신용주/신원호/신현영/안만호/안명희/안정배/양덕수/
양세영/양수민/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창숙/양현주/양환/양효식/염미순/염송주/오경섭/오민임/오수진/
오숙향/오승원/오영출/오양근/오재록/오하늘/오현자/오현주/우성주/우종식/위라겸/위준철/유경호/유기성/
유영근/유영순/유영엽/유영창/유원석/유은경/유은숙/유주훈/유지원/유혜정/유호진/윤금봉/윤기현/윤남/
윤동준/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승희/윤원희/윤인수/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교이/
이금래/이금희/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방수/이보라미/이복섭/이상엽/이성호/이성환/이송/
환/이수/이승용/이승우/이승익/이승한/이승희/이영숙/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용현/이우주/이원기/이일호/
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석/이정식/이종민/이종환/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진아/이진형/이창일/
이창현/이창환/이학승/이현숙/이현승/이현진/이현철/이형광/이형숙/이형완/이혜령/이혜용/이화/이희은/
임경숙/임성기/임성진/임은아/임은희/임지현/임진욱/임창욱/임태삼/임혁/임효철/장관호/장근천/장근현/
장동춘(박민아)/장복천/장영미/장유선/장이주/장이진/장지은/장진실/장향금/장희웅/전경님/전납실/전대열/
전명희/전상보/전성철/전양수/전준수/전준영/전현호/전형숙/정경순/정고운/정대호/정동욱/정미라/정병이/
정상문/정성배/정수민/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주/정영호/정옥례/정우영/정유나/정유미/
정윤나/정윤정/정인성/정인숙/정재근/정종하/정종삼/정지범/정창권/정철주/정철희/정태연/정현찬/정형권/
정홍조/정효준/정효준/조광운/조미정/조상현/조소연/조애련/조애순/조영규/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용만/
조원기/조이환/조재문/조중배/조창익/조철제/조혜향/조호빈/주성은/주훈석/지이화/진선화/진성필/진지연/
진택근/차선미/차용만/차용훈/채희준/최경/최경만/최경수/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명희/최비호/
최석원/최선국/최성국/최승주/최순재/최승운/최승희/최양선/최영란/최영섭/최영숙/최영철/최예화/최완수/
최용선/최원석/최은규/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정훈/최정희/최진상/최철수/최태욱/
최현영/최호봉/최화녕/최환석/최효/추연성/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성혁/
홍세영/홍정우/황선주/황순진/황형수/황혜미



지난12월10일 청소년 기자단 3기 생태신문을 완성하고,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6월에 남향 까치동산에서 둘러 앉아 새들의 이동경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망원경으로 관찰했던 게 생각나네요.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텃새와 철새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새를 색연필로 따라 그리고, 특징을 찾아 이야기 나눴습니다. 새들의 서식환경에 관심을 갖고, 생명과 자연을 지키며,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활동을 마치며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집주변, 학교가는 길, 친구 만나러 가는 길, 산책가는 길 어디서든 새소리가 들리면 우리의 탐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 (부제 : a love song)



©다큐영화 <수라> 스틸컷

• 제작 : 2022년(미개봉) • 감독 : 황운
 -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 제48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 수상작

새만금 간척지가 들어서기 전에 존재한 갯벌. 아름다운 비단처럼 펼쳐져 있는 갯벌 '수라'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서면 힘겹게 명맥을 이어 온 수라 갯벌은 영영 사라질 수밖에 없다.

환경영화

갯벌을 지키려면 지금 움직여야 한다. 영화감독 윤은 2006년, 갯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새만금간척사업이 강행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갯벌이 말라 버린다. 상실감을 느낀 윤은 촬영을 포기한다. 10년 뒤 윤은 운명처럼 '새만금의 도시' 군산에 이사를 오고, 동필을 만난다. 시민조사단의 일원인 동필은 20년 동안, 갯벌에 멸종 위기종 새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왔다.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도요새를 찾으러 다녔던, 동필의 아들 승준은 어느새 아버지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 생명의 증거를 찾는다. 동필은 오래전 보았던 도요새의 군무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 동필의 이야기를 듣고 매혹이 전이되는 것을 느낀 윤은 포기했던 다큐멘터리를 다시 시작하고, 아름다움을 찾아 나선다. (출처: 서울독립영화제)

* 새만금방조제는 지난 2010년 4월 완공되었으며, 고군산군도의 섬과 김제시, 부안군을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총 33.9km)이다. 방조제 건설로 인해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새만금방조제 안쪽에 위치한 군산공항 활주로부터 1.35km떨어진 수라갯벌에 조식으로 바닷물이 드나든다. 방조제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없어 갯벌의 기능을 잃었다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수라갯벌은 염생식물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터전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수라갯벌에 국제공방이란 미명하에 미군의 활주로 하나를 더 건설하려고 해서 문제이다.

‘엮을편(編)’을 소개합니다

글 | 김경애 회장

우리가 어떻게 인연이 되었을까? 재작년 겨울, 처음에는 캘리그라피라는 공통적인 관심으로 만나게 되었다. 서로를 알아가게 되면서 모두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환경에 관한 관심과 여행, 술, 놀이에도 찼던 심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우리끼리 공모해서 진짜 민주적으로 ‘시시락락(詩時樂絡)’이 탄생하였다. ‘시와 함께 언제나 즐겁고 물처럼 서로를 잇는다’는 뜻이다.

임경숙 사무국장님이 있어서인지 ‘목포환경연합’에도 관심을 두게 되고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다. 편리함에 길들여있던 우리는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고(사실 눈치 봄), 공원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불편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여행하면서 개인 컵을 사용하고, 때론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변화가 생겼다.

환경연합 회원들이 동호회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여행’, ‘등산’, ‘독서’, ‘글쓰기’, ‘놀이’, ‘술’ 등 모든 것이 가능하였지만(웃음) 이미 비슷한 동호회가 있었다. ‘목포환경연합’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장점을 살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이렇게 재탄생하게 된 것이 ‘엮을편(編)’이다.

“‘엮을편(編)’은 시와 글을 쓰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시와 수필, 취재 등 함께 글을 쓰고 소식지에 기고합니다. 소식지 면 구성 등 논의해서 의견 개진도 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정화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무엇보다 즐겁게 환경운동을 합니다.”

처음으로 회장이 되었다. 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음에도 글쓰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맘 맞는 벗들이 함께한다면 좋은 글을 쓰고, 또 쓰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 더욱이 환경 관련 글과 시에도 관심이 많다. 『가족사진』, 『목포역블루스』 두 시집이 있다. 올해는 수필집도 출간할 계획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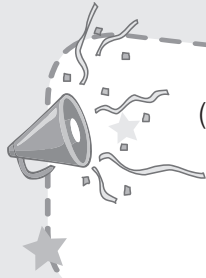
이화 샘은 국문학을 전공한 캘리 작가다. 글씨 뿐만이 아니라 그림과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다. 캐리공작소 대표를 하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든든한 회원이다. 최근 팔십이 넘으신 어머니와 『꽃은 다 이빠야』 ‘색연필화 생활 장인 오화자의 컬러링북’을 출간했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고 딸 이화는 글씨를 썼다.

윤호 샘은 독서와 낭독으로 내공이 탄탄히 다져져 있다. 동시 창작집 공저에 두 번이나 참여했다. 우리 동호회에서 홍일점인 남성, 언제나 늙지 않는 어린 왕자이면서 목표를 사랑하는 청년이다. 무엇보다 여행 기획자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

목포시민신문 기자 활동 경력을 가진 막내 효빈 씨. 요즘 한창 소설 쓰기에 몰입해 있다. 올해 계획은 작가로 등단을 하는 것이다. 또 우리 회원들은 매혹적인 효빈 양에게 모두 빠져 있다. 사랑스러운 막내에게 빠지면 벗어나기 힘들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 임경숙 사무국장님, 우리는 임 장관님이라고 부른다.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섬세한 감성과 아름다움을 지녔는데, 왜 임 장관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러함에도 진지한 사무국장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극과 또 경각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엮을편(編)’은 김경애(회장), 이화, 김윤호(총무), 이효빈, 임경숙 다섯 명으로 구성되었다. 새해 들어 1월 말에는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단’으로 진도 하조도와 해남 목동리에 다녀왔다. 학생들과 학부모 독서지도를 하면서 ‘국제 연안 정화의 날’, ‘반려 해변’, ‘바다(해변) 입양’, ‘비치코밍’, ‘플로킹’ 등을 알게 되었다. 이론으로만 알지 않고 직접 실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어 의미 있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재능으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고 ‘목포환경연합’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사)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명 회원시대로!

* 회원가입 문의 사무국(061-243-3169)

새롭게 (사)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2022.12.01.~2023.01.31)
환영합니다. (가나다순)

- 강화심(이경아)
- 김경희(김종수)
- 김맥아(김윤호)
- 김영희(자발적)
- 김원중(최송춘)
- 김정훈(이현승)
- 김지희(김종수)
- 봉문수(최송춘)
- 선채원(김원중)
- 송미정(김종수)
- 안만호(최송춘)
- 양판수(김윤호)
- 우종식(이현승)
- 윤금봉(최송춘)
- 이보라미(최송춘)
- 이용현(이진아)
- 이은주(자발적)
- 이종민(최송춘)
- 이현철(최송춘)
- 전명희(무관)
- 전준영(김중국)
- 정승원(자발적)
- 정태연(제갈경희)
- 조소연(최송춘)
- 조중배(최송춘)
- 주훈석(최송춘)
- 최경(박미덕)
- 최원석(박용)
- 최정희(최송춘)
- 최효(박미덕)



목포환경운동연합 신입회원 한마디

김경희 “그저 함께하는 작은 마음입니다. 작은 마음,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구하리라 믿으며.”

김지희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 아닐까요?”

양판수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서 가입했습니다.”

이보라미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현 “동생의 권유로 가입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파이팅!”

이현철 “오늘의 즐거움과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러했듯이 더욱더 역동적인 환경운동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태연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서 홍어와 수산물을 판매하는 ‘조아홍’이라고 합니다. 환경에 늘 관심이 있었는데 목포환경운동연합에 가입하게 되서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차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 안내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정관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2023년 목포환경운동연합 27차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2022년 한해 회원님의 열정과 관심으로 무사히 사업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년 도약을 위해 회원님을 모시고 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2023년 2월23일(목) 오후6시30분
장소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대강당 2층 (목포시 송림로41번길 11(용해동))
내용	<p><안건선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원보고 2. 전차 회의록 보고 3.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4. 2022년 감사보고 승인의 건 5. 임원 선출(안) 승인의 건 6.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7. 기타안건 <p><폐회선언></p>

제28회 전남녹색환경대상 <자연환경보전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함께해주신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기쁜 마음을 회원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회원수첩을 제작했습니다.

늘 함께 가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사계절 따라 환경기념일이 담겨있고, 마음껏 메모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을 방문해주신 회원님들께 수첩을 나눠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에 발걸음해주세요. :)

